

人文論叢

82권 2호

2025년 5월

서평

인류학자의 연구일지 엿보기, 한 편의 지식인 연구가 완성되기 까지의 우여곡절

김인수*

[서평] 이문웅(2024), 『농정학의 개척자 강정택』,
YBM, 354쪽

1. 추적자와 그 동료들

책의 맨 앞 페이지를 열면 “35년여간 강정택 선생을 뒤쫓았던 나의 오디세이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라는 구절이 나온다. 강정택(姜鎰澤)은 울산 달리 태생(1907)의 농정학자로, 대구고등보통학교와 일본 도쿄의 제1고를 거쳐 도쿄제국대학 농학부를 졸업하고 부수(副手), 조수(助手)에 이른 수재로 알려진 인물이다. 해방 이후에는 서울대의 전신인 경성대학 법문학부 교수와 이승만 정부 농림부 차관을 지냈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 남북된 이후로는 소식을 알 수 없다. 강정택에 대한 이문웅 교수의 지적 오디세이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인물의 흔적을 찾아내는 고단함과 희열이 함께 묻어 있다.

이 책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초판 및 개정판의 서문과 학계 동료 5명이 쓴 발문이다. 본문의 내용 이상으로 이 글들은 읽는 재미가 쏠쏠하고 자못 흥미를 자아낸다. 강정택의 삶의 궤적, 그의 이력과 네트워크를 찾아내는 과정에 이문웅 교수의 네트워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이 새삼 이채롭다. 한 인물의 인생 궤적을 온전히 추적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이 걸어난 길 곳곳을 찾아내어 살펴야 하는데, 이런 일은 연구자 한 사람의 힘

*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

만으로는 도저히 수행하기 어렵다. 이 책의 집필 과정을 저자 중심으로 해석한다면, 강정택의 삶의 궤적 곳곳, 길목 하나하나를 ‘업계 탐정들’의 도움으로 수색하여 정리한 작업에 비견된다. 5명의 업계 탐정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

나는 이 책의 끝자락에 ‘발문’이라는 코너를 두었다.

[...] 그간 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중 다섯 분으로부터 발문을 받아 이 작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행되었는지 그 뒷이야기를 담고 싶었다. 그 다섯 분은 전경수(서울대 명예교수, 인류학), 임경택(전북대 교수, 문화인류학), 박동성(순천향대학 교수, 글로벌 문화산업학), 조정우(경남대 교수, 사회학), 신형식(울산박물관장 역임, 현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장)이다(본문 10쪽).

이문웅 교수가 이들로부터 받은 도움의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전경수 교수는 강정택과 그 후견인 시부자와 게이조(渋沢敬三) 간의 일상화된 친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일본 가나가와대학의 일본상민문화연구소 아카이브에서 찾아주었다. 조정우 교수는 도쿄대학 농과대학에서 연수하던 시절 지도교수인 마쓰모토 다케노리(松本武祝) 교수와 함께 강정택의 졸업논문과 논문 다섯 편을 찾아주었고, 계다가 농학부 도서관에서 「조선 농촌사회경제 조사항목」과 「조선 농촌사회경제사정 일반조사표」를 발굴해 보내주었다. 특히 후자는 강정택이 지도교수인 나스 시로시(那須皓)의 “조선 농촌생활의 조사와 연구” 프로젝트에 부수 자격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경택, 박동성 교수는 도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들로서, 강정택의 일본어 논문의 번역과, 강정택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울산 달리 위생조사 보고서 『조선의 농촌위생』의 번역을 맡아주었다. 이 외에도 권태준, 정영일, 최호진 교수 등 선대나 그 자신이 강정택과 인연이 있는 여러 인물로부터 구술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력자들

가운데에는 강정택의 가족도 있었다. 강정택이 외삼촌의 후원과 은덕에 감사하며 자신의 첫아들을 그의 양자로 보내게 된 복잡한 가정사, 그리고 그와 연결된 여러 인물이 귀중한 증언을 해주었다. 물론 가족의 증언이 종종 서로 일치하지 않아 애를 먹는 일도 많았는데, 이처럼 가족 안의 경쟁과 불화, 갈등으로 인해 생겨난 복잡한 퍼즐을 풀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인류학자의 장기(長技)이기도 하다.

이문웅 교수의 강정택 추적은 이처럼 강정택이 거쳐 갔을 여러 요로에서, 또 그 요로를 대상으로 활발히 연구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과의 네트워크, 그들이 발굴한 아카이브의 덕을 크게 보았다. 역사적으로 실존한 한 지식인이 맺고 있었던 네트워크를 드러내어 그의 학문적 삶을 그려내는 일은 그의 학문 이력을 도저히 그대로 재연(再演)해낼 수 없는 후대 연구자에게 큰 부담과 고단함을 주지만, 이문웅 교수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퍼즐을 맞춰가면서 강정택의 삶을 가늠하고 조망해볼 수 있는 지적 망루(望樓)를 얻었다. 그 망루의 자리는 여느 연구자라면 모두 부러워할 희열에 가득 찬 자리임이 틀림없다.

2. 지식생산과 아카이브

연구자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일 듯한데, 모든 연구자는 학계라는 네트워크와 자료더미라는 아카이브 위에 서식한다. 저자 역시 그 위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가 그려낸 강정택은 마치 자료더미와는 무관하게 살아간 인물처럼 보인다. 강정택의 학계 이력과 네트워크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추체험이 이 책에서 발군인 것에 비해, 그의 지식이 생산되던 터와 토대에 대한 분석은 다소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강정택의 학술이 갖는 의미에 대한 평가 문제와도 연관된다.

이 책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강정택의 업적에 대한 텍스트 내적 분

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강정택의 농정학이 당시 어떤 연구사적 맥락과 흐름 위에 자리하고 있었는가의 질문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저자의 추정에 따르면, 강정택은 지도교수인 나스 시로시가 핫토리보공회의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사업을 보조한 인물로서, ‘조선 농촌사회경제 조사’를 현장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강정택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표의 조사항목을 간단히 소개하기도 했다(82-83쪽). 이 조사표가 70여 페이지를 넘긴다고 하면서 저자는 이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자의 추정이 타당하다고 전제하더라도, 이러한 평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물론, 핫토리보공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농촌경제조사, 나아가 강정택이 조력했다고 알려진 최용석 주도의 ‘조선의 농촌위생조사’는 그 자체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지식에 대한 평가는 맥락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1930년대 조선의 농정론과 비판적 학술은 현장에서의 실증 조사를 통해 진행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당시 식민지 농정의 폐해를 따져 묻고 비판했는데, 이들이 활용한 지식의 자원은 조선총독부가 펴낸 일련의 조사통계자료였다. 이들은 현재 우리의 학술적 관점에서 볼 때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고도의 통계논쟁을 벌였지만, 이 통계의 전유(appropriation) 행위가 최종적으로 이른 곳은 통계·전문주의로의 몰입이었다. 그들은 여러 한계로 말미암아 직접 조사를 실행할 수 없었고, 논쟁은 점점 더 조선총독부 통계에 의존하게 되어 인식론적 함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다. 강정택이 어떤 계기에서든 당시에 농촌 현장에 나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었다면, 그런 일은 식민지 조선에서 지식인이 경험할 수 있는 대단히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그 70페이지가 넘는 조사표는 일본의 학술이 다다른 자리, 그 아카이브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당시 일본이 자국과 식민지에서 실시한 농정조사에는 대표적으로 소작관행조사와 농가경제조사가 있는데, 거기에 실린 조사표가 나스 시로시와 강정택의 조사에도 두루 활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게다가 나스 시로시는 ‘소부르주아적 농정학’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1920년대 후반에 태평양문제연구회(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IPR)의 의뢰로 중국의 존 로싱 벅(John Lossing Buck), 조선의 이훈구와 더불어 토지이용조사(land utilization survey)를 실시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도 특기해둘 필요가 있다. 저자가 말한 강정택의 ‘놀라운 성취’라는 주장은, 일본의 아카이브 위에 서식하고 있었던 이로서의 강정택의 위치와 맥락성을 재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 강정택의 정치적 위치에 대한 설명도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 저자는 강정택의 사회활동과 해방 이후 농지개혁에의 관여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식 토지개혁을 주장했던 좌파 이론가’라는 종전의 이미지를 논박하는 데에 많은 애를 쓰고 있다. 또, 그런 이미지가 실은 근거가 박약하며 『농지개혁사 연구』(김성호 외, 1989)에 의해 재생산된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강정택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다면 한민당이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강정택=좌파’의 이미지를 벗겨내려 하지만, 그런 가설만으로는 강정택이 차관이었던 시절 조봉암이 장관(초대 농림부장관)이었다는 사실이 잘 해명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한민당의 입장에서 ‘진짜 좌파’인 조봉암의 장관 지명을 막지 않거나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강정택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보는 편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할 것이다.

3. 우여곡절

마지막으로, 한 지식인의 삶과 학문을 추적하여 이만큼의 성취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저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가족관계와 그 속에 움터 있는 감정의 격류를 분석하는 대목에서는 새삼 인류학의 백미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각종 서지를 얻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그저 답답

히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노고가 있었음을 충분히 가늠해볼 수 있다. 무지와 외면으로 역사 속에서 스러져 갔을 강정택이라는 인물이 저자의 손을 거쳐 빛을 보고 제자리를 찾게 된 점도 무척 경이로운 일이다. 저자의 연구일지를 들여다보면서, 그 오랜 ‘우여곡절’이 연구자로서 마냥 부럽고 또 이렇게 작품을 완성한 것에 거듭 찬사를 보내고 싶다. 2008년에 낸 책을 대폭 증보하여 2024년에 다시 책을 내었듯이, 저자가 몇 년 뒤 다시 우여곡절을 거쳐 개정증보판을 내지 않을까, 자못 기대해보게 된다.

참고문헌

김인수(2015), 「일제하 이훈구의 토지이용조사의 정치적 의미」, 『사회와역사』, 107호, pp. 181-215.